

교육과 圖書館

金 鍾 喆

서울대학교 教授

1. 現代教育에 있어서 圖書館의 役割

옛날 書堂에 있어서 千字文이나 四書三經을 외는 것을 일삼았던 시절을 생각해 본다면 그와 같은 注入式 暗記爲主의 교육에 있어서 圖書館이 별로 필요치 않았을 것임은 능히 짐작이 가는 일이다. 그보다 훗날에 있어서도 讀書算을 中心으로 거의 固定된 教育內容을 가지고 教科書爲主의 暗記式教育方法에 억매이던 때를 생각해 본다면 圖書館이 별로 큰 역할을 하지 못했을 것임은 거의 明白한 일이다.

사실 教育의 內容이 비교적 단순했고 教育方法이 劃一的이었으며 교사가 가르치는 것을 그대로 받아서 暗記하는 것을 能事로 하던 때에 있어서의 圖書館은 귀중한 文化財나 研究資料의 저장보관 외에는 특별히 教育的 價値를 인정받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過言은 아니다. 文化的 價値를 가진 자료의 저장보존이 間接的으로 教育에 영향을 미치고 그런대로 效用價値를 지녔음을 부인하지는 못할지라도 教育과 圖書館이 直結되지는 못했으며 圖書館이 教育에 있어서 필수적이고 직접적인 조건으로 생각하기는 어려웠을지 모른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教育에 있어서 圖書館의 重要性이 널리 인식되고 學校나 大學에 있어서 圖書館의 存在는 必須不可缺의 존재로 인정되기에 이르렀고 社會教育機關으로서 公共圖書館의 重要性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특히 大學에 있어서 圖書館이 大學의 心臟部라고 까지 일컬어지고 있으며 學校圖書館의 重要성과 公共圖書館의 教育的 役割도 점차 높이 인식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이 現代教育에 있어서 圖書館의 기능과 역할이 중요시되기에 이른 것은 여러가지 複合 要因이 이에 작용한 것이라 할 수 있으나 특히 중요한 몇 가지만을 지적해 보기로 한다.

첫째 우리는 오늘날 知識의 爆發時代에 살고 있으며 科學技術의 발전, 通信運輸手段의 개발, 文化水準에 향상 등으로 知識의 量은 加速的으로 증대되고 있다.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5년이나 10년이면 대부분의 既存知識이 낡은 것으로 되어 버리기도 하며 계속적으로 새로운 지식이 요청되고 또 발굴되고 있다. 社會變化가 加速的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加速化되는 社會變化에 比例하여 知識의 內容도 變하고 分量도 많아지며 多樣化되고 複雜化되고 있는 것이다. 드러커(Peter F. Drucker)는 그의 力著 <斷絶의 時代>에서 知識社會의 도래를 이야기하고 있거니와 分明히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時代는 知識産業이 흥청거리고 知識의 역할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시대이다. 말을 바꾸어 본다면 現代는 情報化時代이며 知識과 情報을 올바르게 정리분류하고 보존 활용하는 일이 全社會의 기능과 발전에 지대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시대이다. 따라서 이 시대에 있어서는 情報科學의 역할이 보다 증대되고 있으며 知識과 情報를 체계적으로 수집보존 분류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조직하는 資料情報 센터로서의 圖書館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은 自然的 추세요 필연적인 발전이라 할 수 있다.

두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사실은 오늘날 教育의 大衆化 普遍化傾向이 더욱 촉진됨으로써 教育의 對象이 크게 확대되고 異質化 多樣化되고 있다는 점이다. 많은 나라에 있어서 모든 어린이들을 위한 教育, 즉 初等教育의 普遍化 단계를 넘어서서 모든 靑少年들을 위한 教育, 즉 中等教育의 普遍化 단계에 들어서게 되었다. 일부 先進國家에 있어서는 한걸음 더 나아가서 高等教育의 普遍化로 지향하게 되고 하나의 當爲의 原則으로서 1970年 世界教育의 해를 기하여 모든 사람을 위한 教育(education for all)과 평생을 통한 教育(life long education)이라는 새 指標가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의 대상이 확대되고 교육의 時間的 幅이 넓어져 문자 그대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教育을 받아야 한다는 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놓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와같은 教育思潮의 변화와 教育戰線의 擴大는 종래에 극히 한정된 同質性集團을 대상으로 교육했던 시기에 비하여 여러가지로 多様な 學習의 자료와

情報을 필요로 하게 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는 學校 안에서 보다 많은 자료와 정보, 보다 多樣한 읽을 거리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學校 밖에서도 거의 平生을 통하여 그것을 필요로 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겠다.

셋째로 위에서 말한 사실과 관련하여 오늘날 學習의 概念이 크게 달라져 가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의 대상이 大衆化 多樣化 異質化의 경향을 띄게 됨에 따라서 종전과 같은 千篇一律의 注入式 暗記方式을 가지고서는 오늘의 社會에 적합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따라서 오늘날에 있어서는 學習者 자신의 自律學習의 幅이 크게 넓어졌으며 스스로 學習하는 것을 學習하여야만 된다는 점이 강조되기에 이르렀다. 옛날 우리나라의 書堂이나 中世 유럽의 कै터점이라 불리웠던 敎理問答式學校에서와 같은 方式으로서는 이제는 너무나도 不足하고 不適當하게 된 것이다. 學習概念과 學習方式의 變化는 필연적으로 敎科書 外에 여러가지 學習資料를 스스로 활용하여 自律學習을 하거나 課題學習을 하는 것을 수반하게 되었으며 그것은 곧 圖書館의 적절한 活用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II. 우리나라 圖書館의 問題點

필자는 偶然히 圖書館과 적지 않은 관계를 가지게 된 사람의 하나다. 中學校와 大學學生時節에 圖書委員으로서 冊을 지키고 貸出하는 일을 맡아 보았고 大學에 敎職을 둔 후에는 9개년 동안 圖書館 운영의 책임을 맡았다. 그리 저력 圖書館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진 것이 15年 이상 되고 보니 書堂개 3年에 風月을 읊은다는 식으로 圖書館에 대하여 보고 느낀 것이 많게 되었다. 海外에서 修學한 시절에 圖書館을 집중적으로 利用한 經驗에 비추어 보고 각급 우리나라 圖書館의 문제를 생각해 본 일도 있다. 圖書館에 관하여 어떠한 體系的 研究를 한 일은 별로 없고 圖書館學을 專攻한 學徒는 더구나 아닌 필자이지만 經驗을 통해서 우리나라 圖書館의 問題點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본 일은 한두 번이 아니다. 필자가 보고 겪은 바에 의하여 우리나라 圖書館의 主要 問題點을 열거해 본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아직도 많은 圖書館들이 利用하는 사람들의 活用을 위한 편의를 外面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一部 도서관에서는 마치 그것이 어떠한 展示나 陳列을 위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듯이 보이는 경우도 없지 않다. 많은 도서관에서 開館時間이나 貸出方式 기타 여러가지 운영면에서 利用者들의 便宜를 외면

하고 있으며 閉鎖的인 운영방식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開架式으로 도서관을 운영한다거나 利用者의 사정에 따라서 夜間이나 休日 등에도 개관을 한다거나 그 밖에 하나에서 열까지 利用者 위주로 운영해 나가야 된다는 經營管理者의 마음가짐과 자세가 아쉽다. 圖書館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主客이 전도되고 本末이 전도되는 경우를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것 같다. 夜間에 登校하는 大學院을 가지는 大學圖書館이 夜間貸出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이 常例로 되어 있으며 그들을 위해서 어떠한 對策도 강구하려 하지 않는 것은 그 좋은 예이다.

둘째로 아직도 基本的인 서비스의 제공 조차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學校圖書館이나 大學圖書館의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로서는 도서의 대출 외에 參考圖書서비스, 定期圖書서비스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서비스를 갖추고 그것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이 과연 몇개나 되는지 구체적인 통계 같은 것을 갖지 못하고 있는 필자로서 다소 速斷이 될지는 모르지만 심지어 大學圖書館에 있어서 조차 그것은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경우를 보아온 터이라 우리나라 도서관의 현실이 아직도 크게 미흡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이 요원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로 圖書館과 敎授活動과의 연계가 미흡하며 敎授學習하는 과정에서 課題學習을 통하여 도서관의 活用을 권장하거나 도서관측에서 讀書指導를 한다거나 하는 식의 協力關係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싶다. 우리의 敎授學習活動은 아직도 敎科書中心이요, 講義中心의 소박한 발전 단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多樣的 學習資料를 활용하고 學生들로 하여금 自律的으로 학습하고 독서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미흡한 점이 많은 것 같다. 아직도 前近代的인 方式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앞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그와 같은 學習方式을 가지고서는 도서관의 이용이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라 하겠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많은 학교나 대학에서 아직도 우리의 기대와는 동떨어진 현실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지나친 入試準備教育과 너무 바쁘게 짝 짜여진 日課表가 學生들로 하여금 圖書館을 活用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감축시키고 있는 점도 아울러 지적하여야 할 것 같다. 어느 의미에서는 그와 같은 要因이 圖書館과 敎授學習活動의 연계를 가로막고 圖書館의 利用을 감퇴시키는 작용을 하는데 상당한 몫을 하고 있을지도 모

르는 것이다.

끝으로 특히 지적할 수 있는 점은 아직도 圖書館을 운영하는 要員들이 專門의 교육과 훈련을 받지 못하고 도서관 운영에 관한 기본철학과 태도, 능력과 기술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과 圖書館運營을 위한 財政支援條件이 너무나도 빈약하다는 사실이다. 사람과 돈의 중요성에 관해서는 行政과 經營管理에 대한 初步的인 이해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능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며 도서관 경영에 있어서도 그것은 例外가 아니다. 오늘날 大學圖書館과 學校圖書館에 관련을 맺고 있는 사람중 과연 몇 퍼센트가 圖書館學에 관한 올바른 教育과 訓練을 받았는지,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잘 모르겠으나 일반적 관찰에 의하면 역시 要員의 資質 문제가 핵심적인 것임을 단언할 수 있을 것 같다. 專門의 자질을 갖춘 사람들이 운영한다면 지금과 같은 不實한 상태를 창조적으로 타개해 나가는 지혜와 능력을 가졌을 것이다.

한편 豫算面에서 보더라도 너무나 貧弱한 것이 오늘의 실정이다. 大學의 心臟部라고 하는 大學圖書館의 운영에 大學當局이 얼마만큼 豫算面의 배려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짐작이 가는 사실이다. 先進國家에 있어서는 大學을 건설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重點과 優先順位를 도서관의 올바른 건설과 발전에 두고 있는 경우를 흔히 본다. 先進國의 大學과 우리나라 大學의 가장 큰 차이점은 圖書館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과 불실한 것의 차이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圖書館法이 制定 公布된지는 벌써 10여년이 경과했다. 그러나 그 시행과 운영에 있어서는 아직도 盲點과 虛點이 너무나도 많고 문제투성이다. 물론 그간 많은 진전이 있었으며 括目할만한 발전이 이루어졌음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우리의 목표는 아득하고 앞길은 멀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學校圖書館과 大學圖書館의 현실이 그러하고 公共圖書館의 현실은 더욱 그러하다. 우리나라가 최근 다른部門에서 이룩한 비약적 발전에 비추어 보아도 圖書館의 발전은 너무나도 느리고 그 落後性은 너무나도 뚜렷하다.

Ⅲ. 앞으로의 課題

교육과 圖書館은 文化的 傳授와 發展, 知識의 傳達와 情報의 交換 등에 관하여 부인할 수 없는 共通의 기반을 가지고 있으며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 같이 보인다. 兩者의 관계는 앞으로 더욱 밀접해질 수 밖에 없으며 圖書館이 학교와 대학의 상징이요, 중심부가 되어야 할 것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또한 진실로 社會의 教育化가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公共圖書館이 좀더 社會教育의 센터로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이 기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이와같은 기대와는 동떨어져 있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見地에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앞으로 教育과 圖書館의 관계를 올바르게 定立하고 圖書館의 역할과 기능을 개선해나갈 필요가 절실히 되고 있다. 다음에 몇가지 구체적인 當面課題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첫째 우리는 學校의 內外에서 知性尊重의 雰圍氣를 되찾고 讀書生活의 慣習化하는 生活의 리듬을 定立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6·25動亂을 비롯한 不自然스러운 환경 속에서 그와 같은 리듬을 세우지 못한 것 같다. 또한 가난에 쫓겨서 그와같은 마음과 돈과 시간의 여유를 갖지 못하였던 것도 사실이다. 아직도 우리의 환경은 刻薄하고 가난을, 탈피하려는 우리의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새로운 轉換點에 있으며 南北對決의 현실 속에서도, 발전을 지향하는 소용돌이 속에서도 多少의 여유를 되찾을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우리들의 成長과 發展의 기반을 공고히 세우기 위해서도 文化와 知性을 존중하고 冊을 가까이 하며 책임 있는 것을 樂으로 하는 生活態度를 확립하여야 하겠고 또 그것이 어느 정도 가능한 처지에 서게 되었다.

이 점은 教育과 圖書館의 관계를 올바르게 定立하기에 앞서서 필요한 定礎作業이요, 基礎條件이라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그것은 汎社會的인 교육의 과제이며 도서관의 개선에 앞서서 필요한 중요한 전제이다.

다음에 圖書館法과 그 施行令에 나타난 立法精神을 살피서 그 운영에 있어서 좀더 實效를 가둘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 圖書館法이 제정된지 13년이 경과되었지만 公共圖書館의 발전을 보면 그 속도가 너무나도 늦다. 학교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의 경우 量的 발전을 상당히 이루어졌지만은 좀더 實質的인 쇄신과 발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圖書館人의 專門化는 教育과 處遇의 兩面에서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하며 구체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리고 圖書館의 운영을 개선하기 위하여는 豫算配分面에서도 좀더 획기적인 배려가 있어야 하며 法規로 기준을 세우기는 어려울지라도 실제 운영면에서는 무엇인가 확고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財政制約條件속에서 圖書館운영을 위한 財源의 확보가 어려운 과제임은 사실이다. 要는 優先順位의 문제이다. 지금보다는 좀더 획기적인 圖書館을 위한 豫算의 配分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다른 조건의 정비 역시 緣木求漁의 격이 되기 쉽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學校나 大學에 있어서 教育과 研究의 기능을 圖書館의 기능과 좀더 밀접하게 결부시키기 위하여 兩側에서의 道적인 接近이 館진되어야 함은 당연한 논리라 하겠다. 教授하는 측에서는 누차 지적한 바와 같이 現代의 人 教授學習의 이론을 살려서 自律學習과 課題學習의 여지를 넓히고 도서관의 정보와 자료를 活用하지 않아서는 안되도록 유도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또한 圖書館측에서는 각종 서비스를 개선하고 學生들로 하여금 그것을 손쉽게 利用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參考資料의 제시, 讀書指導의 실시 등에 있어서도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나가야 한다. 도서관을 學生들이 자기 冊이나 가지고 와서 읽기 위한 閱覽室 정도로 타락시키고 있는 경우에 그 責任의 일부가 圖書館當局에도 있음을 잊어서는 아니 되겠다.

끝으로 하가지 특별히 지적하고자 하는 점은 圖書館의 발전에 있어서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計劃的인 사업의 추진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圖書館은 教育施設의 정비에 있어서 가장 重點的인 부문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그것을 정비하고 확충하고 개선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뚜렷한 目標과 計劃的인 사업추진이 있어야 할 것임을 지적하고 싶다. 특히 圖書館의 정비에 있어서는 그 外廳施設을 갖춘다는 것 보다도 冊과 定期刊行物, 기타 필요한 補助資料와 情報등을 체계적으로 수집 분류 저장하며 要員을 전문화하고 財政支援을 강화하는 등 업무의 추진에 있어서 明白한 計劃이 있어야 한다는 점은 제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創設 30周年을 맞는 유네스코

1946年 11月 4日은 44個國 聯合 文教長官이 인준한 유네스코 憲章이 그 압력을 발생함에 따라서 유네스코가 정식으로 탄생한 날이다.

第2次 세계대전 종료후 聯合國 문교장관들이 전쟁으로 황폐된 物價 및 精神的 文化를 재건하고 항구적인 평화 理念을 人類의 가슴속에 심어 주기 위해 상설 국제기구로 탄생시킨 것이 유네스코이다.

과거 30년간 유네스코는 教育 科學 文化 및 홍보사업을 통해 국제이해를 바탕으로한 세계 평화의 구현과 회원국발전을 토대로한 인류복지 向上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유네스코 機構 자체도 發展하여 1946年 初創期에는 수십명의 職員과 7백만달라의 豫算을 가지고 40餘會員國이 參加한 가운데 그 事業을 출범시킨 이래 30年 후인 1976年度에는 3천여명이 넘는 직원과 3억달라 규모의 예산과 137個 會員國이 加入한 유엔內에서의 최대 전문기구로 성장하였다.

韓國은 1950年 6月 이태리 「프로렌스」에서 개최되었

던 第5次 총회에서 55번째 會員國으로 加入되었다. 그 후 國內에서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1954년에 설치되어 教育 과학 문화 및 홍보분야의 세계적 사조를 국내에 도입하고 이들 分野의 發展에 공헌하여 왔다.

유네스코는 과거 30년간 많은 活動과 업적을 남기고 있는데 주요사업을 유형별로 살펴 보면 대개 다음과 같다.

教育分野에서 「교육상 차별금지에 관한 활동」과 「문맹퇴치 및 성인교육」등 7개 사업활동이며 自然科學 분야에서 「UNISIST 사업」 「인류와 생물권 관계 연구 활동」 등 6개 사업, 인문 社會科學 분야에서 「人種차별에 대한 반대활동」 「새로운 경제질서 확립에 관한 활동」을 5개 활동사업이며 文化분야에서 「등서문화가치 상호감상 계획」 「문화재 유적보호운동」등 5개 사업, 「코뮤니케이션」분야에서는 「도서관 발전사업」 「정보의 자유소통을 위한 활동」 등 6개 사업활동 등 도합 30餘種의 사업활동을 전개하고 있다.